

# THE LAMP

## 2021년 01월 더램프 소식지



The  
Lamp 23호



## 스리랑카 켄디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 종료

2020년 8월 14일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한 두개 군(郡)에서 진행 되었고, 지원 가정 수는 1,800가정, 9,000명에게 긴급 식량지급, 마스크 지원, 손 씻기 시설 69개설치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NC 마을은 이번코로나19 긴급 지원사업을 한 마을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속속 사업 현장에 도착하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봉쇄령으로 왕래가 어려우니 답답하겠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의 어려움은 완전히 코로나와의 전쟁상황이었습니다. 각 집에 식량이 떨어졌는데 식량은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봉쇄령으로 일을 나갈수가 없어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래 자체가 안되니 식량을 구입 할 수도 없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수마티(Mrs. Sumathi, 43)씨는 자녀가 셋인데 하루 한 끼를 먹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식사 때가 돼서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관계자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자리가 숙연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을주민 Mrs. Sumathi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온가족이 하루에 오직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램프가 식량을 지원해주어서 당분간 식량 걱정없이 하루에 세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주민 Mrs. Sumathi

“코로나19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자녀를 돌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램프가 식량과 마스크를 지원해주었고, 안내책자를 받아서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었지만, 이제 마스크 때문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을주민 Mr. Rajkumar



사진3. 마을주민 Mr. Rajkumar



긴급지원  
키트 안에는  
쌀 10kg, 밀가루  
5kg, 달커리 2kg,  
설탕 1kg,  
차 500g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지어로 번역된  
인식개선자료



더램프는 현지 공중보건감시원(PHI)과 협의하여 코로나19 정보와 예방법, 마스크 사용법과 증상 발생시 대응법 등 자료를 현지어로 번역한 인식개선자료를 총 1020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보건용 마스크 총 243,000 장과 손 씻기 위생 개선을 위해 비누세트 3,240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 국내 코로나19 사업

코로나 19는 해외에만 고통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국내 소외계층과 외국인 근로자, 난민, 탈북민에게는 매우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램프는 국내 아직 도움의 손실이 닿지 않는 분들을 찾아 마스크 기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스크 지원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물색한 결과, **라파엘클리닉, 여명학교, 난민들의 피난처**까지 1월 한 달 동안 총 세 곳에 마스크 기부 하였습니다.





라파엘 클리닉



여명학교(탈북민학교)



난민들의 피난처

라파엘클리닉은 매주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어 한 회 평균 3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더램프의 지원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파엘 클리닉

여명 학교는 탈북 과정에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평소에는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학업을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워지자 학교에서는 긴급히 생필품 꾸러미를 만들어 각 가정에 배송하면서 돕고 있었습니다. 더램프는 올 겨울 각 가정에 배송될 생필품 꾸러미에 마스크 4,000장을 기부하여 각 가정에 배송하였습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생활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더램프가 후원해주신 물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명학교 이사장

난민들의 피난처는 박해와 전쟁을 피해 피난 한 난민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 지위를 얻을 때까지 임시 숙소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난민을 돕는 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스크 지원은 사각지대입니다. 수 많은 제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마스크 1,500매를 도와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하루 평균 다섯 명 정도의 난민분들이 ‘난민들의 피난처’ 를 찾아오시는데,  
더램프의 마스크 기부사업 덕분에 약 세 달간은 피난처를 방문하시는  
난민분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난민들의 피난처 이호택 대표

## 씨티-경희대 인턴십 프로그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주는 저희에게 천금보다도 더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입니다. 씨티은행과 경희대학교의 지원을 통해 저희 더램프에서 박열림 인턴이 8주 간 저희와 함께 하며 코로나19 사업, 기부 캠페인, 기관 대외홍보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박열림 간사

박열림 간사님은 부산에서 지내시면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저희 기관 사무실로 오셔서 많은 업무를 도와 주셨습니다. 간사님께서 근무해주신 8주간 저희 더램프도 국내외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더램프 박열림 간사



대표 이영철 고문 이시영

이사 김달호, 김성민, 조영훈, 김철민, 이형우, 이홍규, 최도식, 구자범, 유명호, 성낙송  
함께하는 단체 대전제일교회, 신철원중앙교회, 한울교회, 안동교회, 동행하는교회, 고능교회,  
뉴라이프교회, (주)유니락, (주)엠에스전기, 주작나무한의원, 위코스메틱스, JBN보험중개